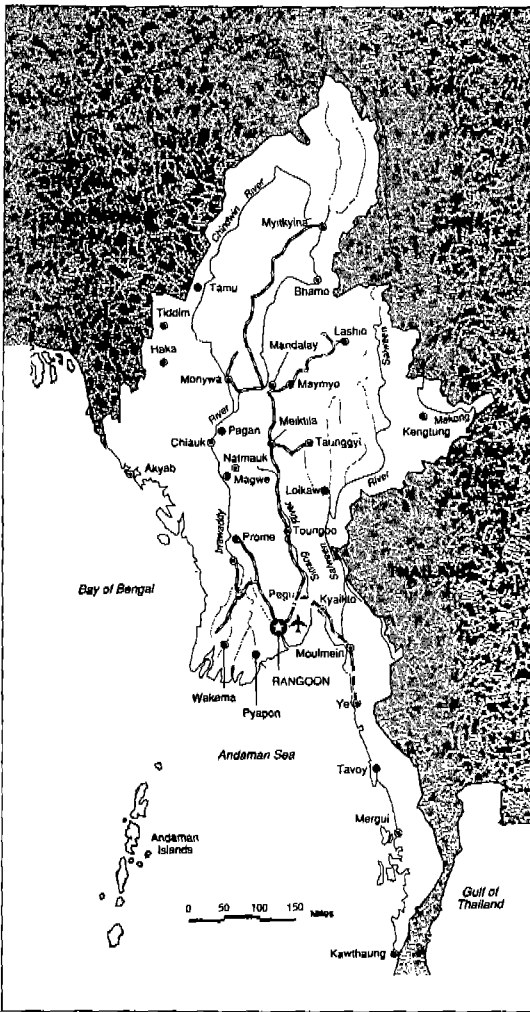


미얀마 연방국

〈2〉

下 鍾 達

한국전력기술(주) 위촉기술역



1. 인야 · 레이크 호텔

양곤의 명가라돈 국제공항에서 양곤시가로 들어가는 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인야 · 레이크 호텔은 1962년에 소련정부가 무상으로 지어준 호텔로서 시가지와는 떨어져 있어 걸어다니기에는 불편하나 넓은 인야호수의 호반에 세워져 있어 야자수와 여러가지 나무가 많고 이름 모르는 남국의 화초가 만발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갖가지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별천지를 이루고 있다. 아침 산책코스로서 너무나 훌륭하다.

호수의 건너편은 모두 울창한 숲으로 뒤덮여 있다. 호수를 따라 산책로가 있으며, 호수 옆을 지나 수면 위에 지어 놓은 옥의 시설물이 있어 주야간을 불문하고 호수 수면위에서 파티나 모임을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다. 호텔 정면의 정원에는 정글에서나 볼 수 있을 것같은 거목이 우거져 있어 마치 원시림 속을 거니는 것같은 적막감으로 자기도 모르게 오싹함을 느끼게까지 된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과는 단절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이 호텔의 단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호텔로 들어오는 입구에는 총을 가진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 것이다.

인야 · 레이크 호텔은 주변환경은 지상낙원인 것 같지만 호텔 내부시설이나 서비스는 그렇지 못하다. 객실마다 양식병기의 고장으로 용변 후에는 물을 별도로 계속해서 부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물을 부어주는 그릇이 별도로 없어 고충이 큰 것이다. 변기 뒤의 수조 뚜껑이 사기로 된 것은 모두 깨어져버렸는지 양철로 만들어 흰 페인트를 칠해 놨는데 이 양철 뚜껑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또 샤워의 노브 조정이 잘 안되어 물이 여기저기서 솟아 나오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뿐만 아니라 수량과 온도조절이 어려워 한참을 만지작거리야 한다든지, 냉방장치가 제대로 가동이 안되어 이 객실에서 저 객실로 조금이라도 실내온도가 낮은 방을 찾아 옮겨다녀야 한다든지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

2. 붉은 수도물

인야·레이크 호텔은 정전이 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으나, 수도물의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단수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12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도물 공급이 안될 때에는 에어컨디셔너의 성능도 급속히 저하되어 실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래저래 견디기 어려우며 짜증스럽기만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오랜 시간동안 수도물 공급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물이 나오기 시작할 때는 붉은 녹물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한다. 한참을 수도물을 틀어놓아야 하는 등 이래저래 낭비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임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3. 미네랄·워터

인야·레이크 호텔에서는 유리병에 들은 미네랄·워터인 마시는 물을 살 수가 있어 매우 편리하다. 이 호텔에서 팔고 있는 미네랄·워터는 「pH7 내추럴·워터」와 「미안마 미네랄 워터」의 두 가지가 있어 식수 확보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다.

이 미네랄·워터는 병마개가 잘 되어 있어 병마개를 돌려서 열 때 병마개의 아래쪽 부분이 분리되어 병목에 남고 마개가 열리도록 되어 있어 마개틀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은 내용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도록 배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통하다고 생각될 정도였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새로 가지고 온 미네랄·워터를 마시기 위하여 병마개를 열려고 하였으나 도무지 요지부동으로 열리지가 않는 것이다. 수건을 감아서 시도해 봐도 안되고, 고무줄을 구해 가지고 병마개 주위에 감아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돌리려고 해도 병마개는 까딱도 않는 것이다.

병마개를 면밀히 관찰해 보니 분리되어야 할 부위에 조금만 회전력을 가하여도 절단될 수 있을 정

도로만 금속부분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절단되어 있지 않은 금속부위가 과다하게 남아 있어 보통 사람의 맨손으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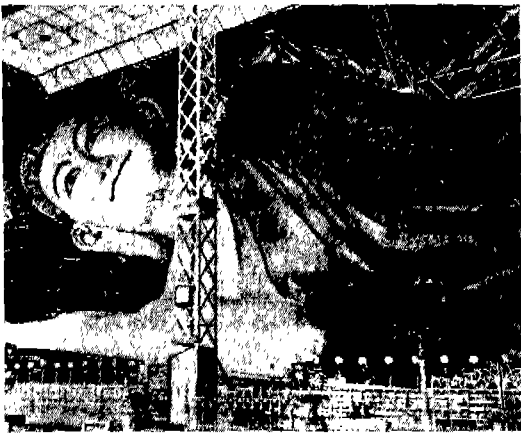
부득이 비장의 스위스제 다용도 나이프에서 줄칼을 뽑아 병마개의 분리되어야 할 부위에 너무 과다하게 남아 있는 금속을 얇게 만드는 작업을 개시하였다. 유리병이라 매끄러워서 본체를 고정하기도 어렵고, 분리선에만 줄질이 가도록 반복동작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 왼손의 엄지손가락과 인지에 본의 아닌 부상을 입어 가면서까지 작업을 진행시켜도 별다른 진척이 없어 하는 수 없이 보이를 불러 마개를 따줄 것을 부탁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보이는 거보라는 듯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열리지 않는 병을 소중히 가지고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 다음부터는 미네랄·워터를 주문할 때에는 미리 마개를 따가지고 오도록 조건부로 주문을 하게 되었다. 내용물의 품질을 보증하려고 만들어 놓은 장치가 오히려 불편만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어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역기능은 우리나라에도 허다하여, 편하고 빨리 목적지에 가려고 만든 자동차가 오히려 목



△ 양곤시 외각부락의 배전선로와 공공교통수단



△ 세계 최대의 와불(臥佛) : 길이가 54.88미터에 달한다.

적지에 더디게 가는 구실을 하고 있는 한심스러운 작태를 볼 때 미얀마 사람들만 뭐라고 나무랄 수도 없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였다.

4. 쉐다곤 · 파고다

불교의 나라 미얀마에는 파고다가 많다. 양곤 시가지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스투파고다는 양곤의 랜드마크로서 손색이 없다. 높이가 근 50미터나 되는 이 황금색의 파고다는 태양 빛을 받아 빛나고 있어 여행자들에게는 양곤 시가지에서 돌도 없는 표적으로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스투파고다는 미얀마의 도로 이정표의 기점으로서 모든 도로는 여기서부터 측정이 시작된다고 한다.

또한 양곤 시가지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쉐다곤 · 파고다는 양곤뿐이 아니고 미얀마의 상징으로서 언덕 위에 당당하게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으며, 대불사리탑을 포용하고 있는 모습은 강렬하게 사람들을 흡인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듯, 국내외 많은 불교도들의 숭배를 받기에 충분한 위용을 갖추고 있는 듯 하였다.

이 쉐다곤 · 파고다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인도의 불타로부터 여덟가닥의 성발을 받아 이 곳에 봉납한 것이 그 기원으로 되어 있다. 그후 여러 차례의 확장공사 결과

마침내 크고 작은 60여개의 파고다에 둘러싸인 대불사리탑으로 성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열대의 태양아래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이 대불사리탑은 그 높이가 99.4미터에 달하며, 여기에 사용된 금박의 수만해도 8,688매에 달한다고 한다. 탑의 최정상부에는 76캐럿의 다이아몬드를 비롯하여 총계 5,451개의 다이아몬드와 1,383개의 루비 등의 보석이 내장되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정성을 다한 그리고 엄청난 값어치를 지닌 파고다는 이 세상에 달리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사람들이 여기에 참배하는 모습은 정말로 진지하기 이를데 없었다. 미얀마의 남자는 일생에 한번은 불문에 입적되어야 한다고 한다. 쉐다곤 · 파고다 참배를 위한 입장요금은 외국인은 5달러, 내국인은 33차트이며, 신발과 양말을 벗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 파고다 경내의 필자. 경내에는 맨발이기 때문에 발바닥이 따갑다.



△ 파고다 탑신 내부구조 : 낙뢰로 파손된 탑신을 보존하고 있었다.

5. 릿 사

미얀마에도 인력 삼륜자전거인 릿사가 있다. 방글라데시처럼 홍수를 이루어 길에 넘치게 다니지는 않으나 가끔 눈에 뜨인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방글라데시의 릿사는 뒷바퀴가 2개로서 손님이 뒤에 타게 되어 있고 인력거꾼이 앞에서 발을 사용하여 근육 에너지를 바퀴에 전달하여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월남의 릿사는 이와 반대로 앞바퀴가 두개로서 손님이 앞에 타고 인력거꾼이 뒤에서 페달을 저어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돌사고시 손님이 완충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미얀마의 릿사는 정말 방글라데시와 베트남 릿사의 절충형으로서 자전거 옆에 좌석을 부착하고 바퀴를 하나 더 달은 것으로 손님을 앞이나 뒤가 아닌 가장 안전한 중간 위치에 태우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좌석이 좁은 것 같으나 사실은 앞뒤를 향하여 등을

맞대고 두 사람이 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재미있어 보였다.

6. 미얀마의 3계절

미얀마는 거의 전국토가 전형적인 열대 몬순기후로서 대략적으로 연중 기온이 높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평지와 산악지역이 다르며, 위도나 그 토지의 고도에 따라서도 다르다. 양곤은 1년 내내 덥지만 동북부의 타운지에서는 건기에는 추운 날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더운 시기가 많기 때문에 미얀마에서는 더위와 어떻게 대결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계절은 하계, 건계 및 우계의 세가지로서 매우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한다.

하 계(3월~5월중순) :

이 계절은 매우 덥다. 이와 같은 더위가 세상에 있어도 좋은 것인지 의심이 갈 지경이다. 더위에 약한 사람에게는 절망적일 정도로 덥다.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겨우 오전중 11시경까지가 가능하고 그 이후는 무엇이든지 귀찮아져 버린다. 태어날 때부터 이와 같은 더위를 알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은 오후가 되면 그늘에서 낮잠을 자든지 잠담을 하든지 하고, 걸어서 돌아다니는 등의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다.

양곤의 시가지도 적막에 쌓이고 잠시 오수(五睡)에 잠긴듯한 분위기에 싸이게 된다. 그러나 열대다움을 강렬하게 느끼게 되는 것은 이 계절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작열하는 태양 빛이 흑독하게 내려 쪼이고 그 아래에서 황금색으로 빛나는 파고다는 비유할 데가 없을 정도로 특이한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는 것이다.

우 계(5월하순~11월)

우계는 부슬비가 하루 종일 계속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양곤에서는 오전중은 되풀이 해서 비가 내렸다가 개였다가 하다가 오후가 되면 가끔 물통을 뒤집은 듯한 폭포같은 빗줄기가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계속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는 너무나 엄청나게 쏟아지기 때문에 우산같은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한다. 마치 물속을 걷고 있는 것 같아서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이 계절은 기온이 하계보다 내려가기 때문에 비가 그치든지 가랑비로 되었을 때를 봐서 걷게 되면 걸어도닐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건 계(12월~2월) :

이 계절이 제일 지내기가 쉽다고 한다. 한국의 초여름과 비슷한 기후로서 하루종일 걸어도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습도도 낮아지게 되므로 지내기가 수월하다는 것이다.

7. 보리수와 물단지

바마의 불교도 집에는 대부분 불단이 있고 조그만 금박의 불상이 안치되어 있다. 불단 앞에는 단지가 놓여 있고 여기에 물을 채우고 계절의 꽃이 꽃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미얀마인들은 이 단지를 보리수의 물단지, 단지의 물을 보리수의 물, 꽃을 보리수물의 꽃이라고 부르고 있다.

인도에서는 석가모니의 깨달음에 아직 열리기 전의 시대에는 사람들은 갖가지 여러가지의 것들을 숭배하고 신앙하고 있었다. 나무에 깃드는 정령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보리수의 정령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미얀마에 가면 도회지전 조그만 촌락이전 반드시 눈에 띄이는 것이 있다. 그것은 선반 위에 나란히 놓여



△ 공원의 레스토랑

있는 물단지이다. 양곤이나 만다레와 같은 대도시에서도 20호 정도밖에 없는 조그마한 촌락에서도 반드시 물단지가 놓여 있는 풍경을 보게 된다.

신앙심이 돈독한 불교도들은 불탑이 있는 경내의 입구, 큰나무의 나무 밑, 촌락 밖의 도로의 교차지점 등에 선박을 만들어 물단지를 놓고 항상 차가운 물을 채워 둔다.

미얀마의 기후는 덥다. 한발자욱 도시밖으로 나서는 일반적인 교통수단은 우차나 도보이다. 인근 촌락까지 가는 데 1~2시간이나 계속해서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통행인이나 나그네는 금방 목이 마르게 된다.

물을 공양하는 사람은 인과율에 따라 장수, 무병, 부귀, 지혜의 발달, 용모수려 등 10가지 종류의 이익을 받게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부처님을 불전 안에서 영원의 공덕을 쌓는 선행의 하나라고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 가. 작물을 심을 것.
- 나. 나무그늘이 있는 큰 나무를 심고 기를 것.
- 다. 시내에 다리를 놓을 것.
- 라. 우물과 연못을 팔 것.
- 마. 선반을 만들고, 물단지를 놓을 것.
- 바. 사원, 휴게소 등을 만들 것.

이들 영원의 공덕의 하나를 현세에서 쌓은 사람은 사후에 이상의 천국에 갈 수 있으며, 이 이상의 천국에는 늙음이나 병듦의 고통이 없으며, 현세의 365일이 천국의 1일에 해당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장수가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녀나 동자의 아름다운 주악을 들으면서 일하지 않아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

미얀마 사람들은 선반을 만들고 물단지를 놓은 선행을 행한 자는 「차가운 물의 시주」라고 부르며, 경의를 표한다. 더운 나라인 미얀마에서는 물은 귀중하다. 물단지의 물은 빈부, 민족, 종교에 관계없이 목마른 사람은 누구나 마실 수가 있는 것이다. 목마른 자가 결코 거부당하는 일이 없는 자비의 물인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